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느헤미야 13장 1 - 31절)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면서 미국이 낳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정치가 링컨을 소개합니다.

그는 1809년 출생하여, 1832년 주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낙선, 1833년 사업 실패, 1834년 주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낙선, 1838년 상원의원 출마하여 낙선, 1840년 선거인단 낙선, 1854년 상원의원 출마 경쟁에서 실패, 1856년 부통령 지명전 실패, 1858년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든 자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낙심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에게도 기회가 왔고,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I do the very best I know how the very best I can. I mean to keep doing so.”

인내! 그것은 리더십의 마크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단코,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1. 실패하고도 일어서서 일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연속적인 패배만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링컨이나 처칠이 믿었던 인내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람을 일으키고 인기가 끌려고 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유대인들을 그 곳에 다시 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용두사미식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왕 20년 - 32년(주전 445 - 433년, 느5:14)과 아닥사스다왕 통치 말년(주전 425 - 420년, 느13장)에 두 번에 걸쳐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늙었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2. 문제는 여전히 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성을 봉헌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때 그들은 성전 예배를 준비하고 이방인들을 배제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바로 ‘그 날’에 했고, 그 날은 성전 봉헌을 한 기념일이었습니다.

백성이 성결해지고, 종교적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7, 8년 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앞에 놓인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총독부임 때에도 같은 문제를 취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 종교부흥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복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은 ①가정신성(잡혼을 하지 않는 일), ②성수주일 할 것, ③성전세를 바치는 일 ④ 첨가된 성전 봉사 ⑤ 첫 새끼 헌납 ⑥ 십일조를 바치는 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버려진 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책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느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느헤미야, 우리는 그의 믿음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내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복잡한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미야는 강박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3. 큰 사고 속에 있는 별레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성전 골방을 맡은 이로서 느헤미야의 방해꾼인 도비야와 연결이 되어(4 - 5절) 그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아십은 자기 손자를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28절). 엘리아십이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돌아간 후 그의 무서운 지도력이 이제는 필요 없으며 지금은 새 시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옛 세력들과 타협하고 가교를 놓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비야는 자기의 영향력 확장에 노력하던 중 결국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도비야를 추방하고 모든 그의 소유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 기물을 다시 정돈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냄새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노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심히 근심했다(8절). 잘못된 노는 더 큰 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완전히 못한 인

간은 함부로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14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담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엘리아십과 도비야를 처치한 후 그는 또 다른 악을 바르게 처리했습니다. 먼저는 십일조 바치는 일을 회복 했고(10-11), 성전에 바치는 다른 것들을 회복했으며(12 - 13절). 안식일을 회복(15 - 22절)했고, 잡혼을 금하며 가족 성결을 강조했습니다(23-28)

- 이에 느헤미야는 두개의 기도를 첨가합니다.
- ① 부패한 제사장에게 대항(29절)하기 위한 기도,
- ② 자신을 위한 기도: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31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느헤미야, 우리는 그의 믿음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내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복잡한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사람 느헤미야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언젠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주제: 전도와 선교
· 기간: 9월5일(월) ~ 11월 7일(월) 10주간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매년 전후반기 두 차례 10주간씩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2005년 하반기 일정인 제28학기 과정을 9월5일(월)에 개강하기로 하였다.

제2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주제는 '전도와 선교'로 정해져 교회 부흥이 절실한 개교회들에 만나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교시는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되어 온 본 교회 이종윤 목사의 시편강해가 계속되고 2교시는 분야별 주제에 의한 외부강사의 강의가 이어진다.

매학기마다 웨스트민스터 홀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금번 28학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28학기 강의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제1교시	제2교시	
9월5일		이광순 교수(장신대)	
9월12일		최원장 목사(어린이 전도협회 한국대표)	
9월19일	시편 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휴강(추석연휴)	
9월26일		김중희 목사(전 경신고 교목실장)	
10월10일		전경호 목사(청년목회자연합공동대표)	
10월17일		김학유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0월24일		서경석 목사(조선족교회)	
10월31일		홍성현 목사(수송교회)	
11월7일		전재욱 교수(이화여대, 한국이슬람연구소장)	
		이동주 교수(ACTS)	
		복음전도와 선교의 성경적 기초	
		어린이 전도와 실제	
	지역복음화 전도전략		
	북방선교의 현안과 전략		
	국내 외국인 거주자 선교전략		
	이슬람문화와 기독교 선교		
	사머니즘 권에서의 선교전략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사랑부 여름수련회 시작

· 주제: 하나님 나라와 문화
· 교육 1국 여름성경학교: 21일(목)-22일(금)
· 사랑부 여름수련회: 17일(주) 102호

사랑부 여름수련회 및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중 중에 시작된다. 사랑부 여름수련회는 오늘(17일, 주일) 사랑부실로 사용

되는 102호에서 일일수련회로 모인다.

또한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2일간 교회에서 열리며 21일(목) 오전

10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다함께 모여 개회예배를 드리고 부서별 여름성경학교 순서를 시작하게 된다.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기도한다.

성경암송 · 필사참가일정표

	7/18(월)	7/19(화)	7/20(수)	7/21(목)	7/22(금)	7/23(토)
1부 (오전9시~ 오전10시)	정미연(14) 권인숙(14) 김희순(14) 박노영(14) 김민애(14) 김경비(14) 이동근(14)	강승술(11) 이계홍(14) 최광성(12) 차도훈(14) 신항범(1) 권용범(3) 김규태(4)	노인숙(3) 이은옥(3) 노경순(3) 조선자(3) 고정숙(3) 남태순(3)	김동진(13) 양호경(13) 양미숙(13) 석춘희(13) 권은주(13)		
2부 (오후2시~ 오후5시)	장양일(6) 강윤숙(11) 김상태(4) 김숙자(4) 임옥균(1) 김예미(대)	허현숙(2) 이은자(2) 이은희(2) 정유선(2) 박성금(2)	안경옥(13) 이금순(13) 최미경(13) 이남화(13) 이옥선(13) 고금환(13) 손성철(13)	최종희(4) 채경희(5) 박미혜(4) 유 선(8) 이현주(4)	대청부 (오후 2시-10시)	대청부 (오후 2시-10시)

고등부 친구초청잔치 7월 17일(주일) 오전 10시 601호에서

고등부 친구초청잔치가 오늘 10시 601호실에서 시작된다. 고등부에서는 그 동안 예배는 드렸지만, 고등부에 오지 않았던 고등부 학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친구초청잔치를 맞아 고등부 임원들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는 릴레이금식기도와 수요일예배 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기도로 이 행사를 준비해왔다. 친구초청잔치에는 고등부 찬양팀 NLC의 신나는 찬양과 고등부 소개영상,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고등부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듀엣의 찬양과 워십팀의 워십이 준비되어 있다.

고등학생으로 아직 고등부 예배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기도한다.

7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7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들에게는 머그컵 세트를 기념으로 드린다.

- 필사회: 김성은 권사(6교구)
- 3독: 김현주 권사(8교구)
- 2독: 이미숙 집사(13교구)
- 1독: 김인식 권사(8교구) 이상애 권사(9교구) 김미성 집사(13교구) 박형숙 집사(13교구) 양미정 집사(13교구)

금주의 성구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31-32)

So Moses went back to the LORD and said, "Oh, what a great sin these people have committed! They have made themselves gods of gold. But now, please forgive their sin--but if not, then blot me out of the book you have written." (Exodus 32:31-32 [NIV])

전국시민양성-장년부수련회스케치

첫사랑을 회복하자!

지난 15일(금) 오후 7시 교육 5국(5국장 박정선 장로) 소속의 장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본당에서 열렸던 이날 장년부 여름 수련회는 강사로 조종남 목사가 섰다. 수련회에 앞서 예배를 인도한 이종운 목사님은 엡 5:1-2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자기를 주는 십자가의 사랑,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산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를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기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이어 이종운 목사님은 강사 조종남 목사님에 대하여 신학의 최고 경지에 이르고 한국교회의 경건운동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바쁘신 중에도 수련회 강사로 서심에 감사를 드렸다.

다음은 수련회 강의 내용의 요약이다.
 에베소 교회는 한 일도 많았고 열심도 있었고 교리의 정통도 잘 지켰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오늘의 교회와 신자를 향한 경고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사랑을 회복해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사랑은 어떤 것인가?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거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John Scott이 말한 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본질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1.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롬 5:5-10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자비로운 사랑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은혜로운 사랑이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계속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이다. 신학자들은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2.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마 22:39).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와 봉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랑은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 사랑은 소유물이 아니므로 관계에서 결단할 때만 존재 한다.

3. 사랑하는 훈련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결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이거나 조건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은혜에 감격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행되는 사랑이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허숙(편집부)

김치신학세미나를 마치며...

Evangelization for the Whole World · Kingdomization for the Whole church · Christianization for the Whole Culture

세계의 복음화, 교회의 천국화, 문화의 기독교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오광환 집사 (제13차 김치세미나 진행부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민족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서울교회는 금년에도 제 13차 김치세미나로 세계개혁신학회 회원들을 초청하고 6월 중순 100여명의 실행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이영기 장로) 하고 18개국 100여명의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2005년 흥해작전이 한창이던 6월 16일부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예년 김치세미나와 달리 이번에는 세계 개혁신학회(회장: Abraham Van der Beek 네델란드 자유대학 교수)와 한국 장로교 신학회

(회장 이종운 목사)와 한국 개혁신학회(회장 이상직 호서대 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교회 한국교회 갱신연구원(KIMCHDI)의 후원으로, 연합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참석예정자 입출국 스케줄에서부터 주재 강연, Work shop, 등 일정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여러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예정했던 후원헌금으로 예산을 충족할 수 있었고, 각 방면에 달란트를 받은 실행위원들이 힘을 합쳐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였고, 주방에서는 맘을 흘리며 정성껏 식사를 준비, 대접하며 새벽기도부터 하루 종일 땀뻑한 일정을 잘 소화했습니다. 특히 오정수 장로님택에서의 Garden Party와 이찬

호 집사님의 사업장에서 Farewell Party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에 각종회의 등 세계 여러곳을 다녀본 각국 신학자들이 서울교회의 놀라운 조직력과 성도님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친절에 감탄하며 “Thank You!”를 연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를 불러 우리의 작은 힘을 통해 세계복음주의 참된 신학이 정립되고, 바른 복음이 전해지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의 복음화 (Evangelization for the Whole World), 교회의 천국화(Kingdomization for the Whole church), 문화의 기독교화 (Christianization for the Whole Culture)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시환 집사(중등부 부림)

이영숙(사랑부 부림)



중등부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주제로 7월 25(월)~27(수) 까지 2박3일 간 중등부 학생들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한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번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단비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교우 및 이성 관계, 학업문제 등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더욱 복잡해지고 바빠지는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그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의 큰 그림과 인생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히, 이종운 위임목사님은 둘째 날 특강을 맡아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중등부 윤영국 목사가 저녁집회를 인도하여 학생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련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훈련,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학습센터, 성경공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성경퀴즈대회,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캠프 화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청소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몽 재활원에서 일곱 살 남직한 사내아이가 사랑부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당에 다니다가 교회는 처음 나오는 것으로 한 달 간의 교회생활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최종적으로 성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계속해서 다니지 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재활원측에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그 한 달이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성경학교이지만 그 것을 맞이하는 아이들에게는 늘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교사들은 성경학교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잠시도 기도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금년의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세상문화와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숨씨와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과 사랑의 문화로 사랑부는 이러한 문화를 개발하고 교회교육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또 애써 마련한 여름성경학교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랑부 아이들의 신앙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양팔이 없어도 어깨에 붙은 두 손으로 못하는 것 없이 매사에 적극적인 우리의 꼬마 친구 은혜가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노창훈



1.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2. 함께하는 단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3. 마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남연



1. 기도로 모든 준비에 철저하게 하소서.
2.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일길 기도합니다.
3. 건강 지켜 주셔서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주 계속)

동정

- 오정수 장로(9교구) 영광전자 방배 프라자 확장 감사예배를 19일(화)에 드린다.
- 개업: · 강창균 성도(4교구 최영자 집사 차남), 코엘성형외과, 신사동 586-5 강석빌딩4층, T. 542-6632
· 신현업 황연희성도(8교구) 동아상가3층3동6호 평화자수 T.2265-5975
· 이윤진 성도(14교구, 청년부) 키즈홈스쿨(초등학생영어) 개포1단지, T. 576-1322
- 득녀: 정 건 집사 김금란 집사(5교구)
- 이사: 신현업 황연희 성도(8교구) 성북구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
- 교역자 휴가: 박광일 전도사(7월18일~23일) 대행: 윤영국목사 (011-9653-3751)
- 주간 식당 봉사: 바울남선교회(7월17일) 엘리야남전도회 (7월24일)
- 금주의 식사: 최학인 장로 최소희 권사 가정 (아들 군복무 마침을 감사하며)

오정식 목사(고등부 지도)



본교회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평택에 있는 진위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2005 고등부 여름수련회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왜 변화입니까?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는 진정한 변화의 장입니다. 웬만큼 열을 가해도 변화가 없던 쇠가 커다란 용광로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서 쇠물이 되는 것처럼 이번 고등부 여름수련회는 변화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한 사람은 교회 안으로, 또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교회로

들어간 사람은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술집으로 향했던 사람은 허름한 술집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내가 변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수련회 참석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이번 여름수련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2박 3일 동안 학원가지 않아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2005 고등부 여름수련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진정한 변화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체 하소서
4. 서울 암송 · 필사성경 제작이 순조롭도록
5. 선택받은 백성, 제사장의 나라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오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오시는 길

